

# 회색문헌의 종류와 유통상의 문제점

전 학 병\*

## I. 머리말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정보자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정보자료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주로 도서관, 정보센터나 서점을 통하여 입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 이외에도 내용적으로 중요한 자료중에서 작성자로 부터 직접 입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논문의 발표장에 참석해야 입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Grey literature란 용어는 1976년 LISA의 키워드목록에 'graue literatur'라는 용어의 번역어로서 출현하였고 그후 영국에서 개최된 York세미나에서 grey literatur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은 non-conventioned literature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자료는 과거 수세기동안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정보원으로서의 가치가 인식되고 있으며, 그 수집과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심각하게 거론될 정도로 넓게 확산되고 있다.

본고는 회색문헌(grey literatwe)의 특성과 종류 및 선진 각국과 국내의 수집 및 유통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회색문헌의 자료수집 및 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 회색문헌의 특징

본고에서 말하는 grey literature란 '공개되어 있

는 문헌이나, 도서나 잡지와 같은 통상적인 출판물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입수할 수 없는 자료로서 입수하기 곤란한 점이 많은 문헌자료'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문헌을 'white literature', 비밀문헌을 'black literature'로 범주화할 경우,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또한 유통경로가 일반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non-conventional literature'라고 하며, 입수가 곤란하다는 의미에서 'hard-to-get자료'라고도 불리운다.

1988년 7월에 미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미일과학기술협정의 제1조 B와 부속서 II-G에 '용이하게 입수가 가능한 전문적 문헌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란 표현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자료들의 입수 및 교환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회색문헌의 이용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반면 회색문헌은 통상적인 서적판매경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재확인과 입수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한정된 양만 제작된다는점과 내용과 생산에 있어서도 엄밀한 품질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색문헌의 취급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공개되는 것이나, 일반적인 출판물의 유통경로(서점 경유)를 거치지 않는다.
- (2) 작성부수가 적다.
- (3) 배포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 (4) 특정의 독자를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 (5) 이용을 감안하여 작성되지 않는다.
- (6) 비매품이 대부분이다.
- (7) 서지사항이 완전하지 않거나, 통일되어있지 않다.

특히 서지사항의 불분명으로 목록작성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제목이 표지와 속표지가 상이하게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수료

나, 어디까지가 제목이며, 어느것이 시리즈명인가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발행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한 발행일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 2. 회색문헌의 종류

회색문헌에는 다양한 자료가 포함된다. 즉, 기술보고서 및 조사, 연구보고서, 회의자료, 학위논문, 대학 및 기업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메뉴얼, 사보, 홍보자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상술한 자료의 전부가 회색문헌은 아니다. 각각의 자료에 따라서는 서지정보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 입수에 특히 문제가 되지않는 자료도 많다. 일반적으로 회색문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된다.

- (1) 정부기관이 간행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각종의 위원회, 심의회 등의 제안서, 보고서, 위탁연구 보고서 등(공식적으로 발행되는 백서 및 통계자료 등은 제외)
- (2) 정부기관의 연구기관(정부출현기관 등)이 간행하는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업무보고서, 연보 등
- (3) 재단법인, 사단법인, 협회 등의 비영리단체 등이 간행하는 회보, 회지, 조사보고서, 연보 등
- (4) 학위논문
- (5) 학회가 간행하는 회의록, 프리프린트 등
- (6) 싱크탱크 등이 간행하는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이와 같은 회색문헌에는 최신의 첨단기술, 대규모 프로젝트, 행정정책, 과학기술동향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일반의 논문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자료는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양이 발간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회색문헌중 가장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학위논문,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한다.

### 2.1. 연구보고서

이러한 종류의 자료중에서 내용적으로도 중요하고,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 것이 연구보고서이다. 학술잡지의 논문에 비하여 페이지 수에 제한이 없어 대량의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으며, 심사제도가 있다하여도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행까지의 타임래그가

짧다. 연구보고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주로 경인쇄의 형태로 발행된다.
- (2) 1권 1논문 형식이다.
- (3) 페이지수에 제한이 없다.
- (4) 부정기적으로 발행된다.
- (5) 보고서의 고유번호를 갖고있는 경우가 많다.

#### 2.1.1. 정부가 간행하는 보고서

정부가 작성하는 보고서를 대별하면 정부 및 정부내의 위원회, 심의회 등의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발간하는 것과 외부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연구개발이나 조사연구를 위탁한 성과물을 발간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정부 및 정부의 위원회, 심의회 등의 검토결과물의 발간

행정기관은 중요한 정책의 계획 및 입안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또는 외부의 두뇌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회 등을 설치하여 방침, 현안과제 등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성과물로서의 보고서에는 관련산업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의 정보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분야와 관련된 사업의 장래구상, 사업전략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2) 외부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연구개발이나 조사연구를 위탁한 성과물의 발간

정부는 첨단과학기술분야나 중요한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동분야의 연구개발을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며, 연구실시후에는 그 성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한다.

예컨대 과학기술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개발지원제도를 설치하여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을 지원하여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목표에 따른 중점 기술분야를 전략적, 선택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198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추적인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많은 보고서가 생산되고 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그 개발대상과 목적에 따라 산업 및 공공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목적기초연구사업, 연구개발평가사업의 4개사업으로 구분, 추진되고 있다. 이 결과 발생하는 보고서는 한정된 전문적인 분야를 단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학술논문에 비하여 전체적 또는 거시적인 내용이며, 정부

가 관여하는 사업, 연구개발의 기획, 입안, 신구사업의 내용, 장래의 모형 등을 알 수 있다.

### 2.1.2. 정부의 연구기관이 간행하는 연구보고서

정부에서는 많은 과학기술관계의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은 민간기업의 연구소와는 달리, 수익으로 직결되는 실리적인 연구보다는 기초적 연구나 정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및 국제협력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초적, 장기적인 연구내용이 많고, 지방연구소의 경우, 지역밀착형의 실무적인 연구가 많으며, 연속시리즈로 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 2.2. 회의 자료

연구자를 대상으로하는 회의에는 학회, 심포지움, 세미나, 토론회 등 여러가지의 명칭이 사용되며, 그 곳에서 발행되는 자료도 다양하다.

#### ① 회의록

회의에서의 보고, 발표를 완전하게 수록한 것

#### ② 프리프린트, 요지집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연구자가 발표하는 내용을 모아서 작성한 것 또는 발표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있다.

**(1) 회의록:** 회의록은 회의에서 발표하여 출석자의 평가를 받게 되므로 학회지의 학술논문과 동일한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의개최에 관한정보를 알고 있어야 함으로 입수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그 발행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즉, 회의별로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발행하거나, 매년 회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연속간행물로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회보, 논문집의 별책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다. 회의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발표내용을 간행하고 있으므로, 역점을 두고있는 곳을 알 수 있다.

② 연구내용의 발표에 추가하여 질의응답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③ 서지사항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논문의 기술방법이 통일되어있지 않다.

**(2) 프리프린트, 요지집:** 프리프린트, 요지집은 정식 회의록이 간행되기 까지의 참고자료로서 취급되어, 장기간 보존되지는 않으나, 회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

는 속보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거나, 그 발전속도가 빠른 분야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프리프린트 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프리프린트에 대해서는 발행비용 등 경제성의 측면에서 정식의 회의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의록에 비하여 내용의 완성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며, 회의록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도 있다.

② 심사제도가 없으며, 투고한 것이 거의 수록된다.

③ 문장의 기술형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④ 서지사항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회의록, 프리프린트, 요지집 등은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에 따라 연구자에게는 학회논문집과 함께 보완적인 자료로서 불가결하다. 또한 동자료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의 최근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연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귀중한 자료이다.

### 2.3.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학위취득 대학에 제출되고, 그 후는 일반에게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내의 도서관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박사논문은 연구의 독창성이 기본요건이므로 대학의 연구자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연구자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학위논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의 논문에 비하여 페이지수가 많고, 매우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도표, 데이터, 참고문헌이 많다.

3) 심사제도 대신에 학내에서의 교수 등에 의한 논문심사가 있으므로, 내용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다.

4) 서지사항의 기술이 제출처인 대학에 의해 결정된다.

### 2.4. 기 타

**(1) 기업이 간행하는 기보 등:** 민간기업은 자신의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개발과정에서 정보를 필요로함과 동시에 개발의 성과로서 많은 정보를 생산하여 기보로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자신의 존재의의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회적 사명에서 개발성과를 대외적으로 PR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의 기보는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는 경우가 드물어서 입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특히 경쟁기업의 개발동향이나 기술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특허, 실용신안과 함께 기보는 귀중한 도구이며, 계속적으로 주시함으로써 자사의 개발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대학 등이 발간하는 논문집 등: 대학은 교육기관임과 동시에 연구기관이므로 많은 연구성과가 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부 또는 학과내에 작은 학회를 설립하여 여기에서 대학에서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소학회가 대학의 논문집 역할을 하게 됨으로, 대학의 논문집과 학회논문집과의 구별이 어렵게 된다. 이외에도 대학의 부설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자료도 있다.

(3) 제품카탈로그: 학회발표와 동시에 또는 발표가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않아 시판품이나 샘플이 전시되거나 출하된다. 이와 전후하여 신제품의 시판용카탈로그가 제작된다. 이 제품카탈로그는 새로이 개발된 제품의 마케팅활동의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자료로, 신제품의 장점을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매체인 것이다. 어디까지나 신제품의 발매를 추진하는데 자사가 연구개발한 신제품의 기술을 판매활동의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는 카탈로그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그다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기술적인 데이터나 제반 특성은 허위로 기술할 수 없으므로 표나 그래프 등에 의해 알기쉽게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카탈로그로부터 경쟁회사 제품의 변화, 신제품의 개발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장단점, 기술동향, 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 3. 외국의 현황

#### 3.1. 미국

미국은 기술보고서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기술보고서의 유통과 관련하여 가장 활동이 활발한 기관은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로서 NTIS는 미국연방정부의 자금지원에 의해 행해지는 연구성과를 민간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수집, 처리, 제공하고 있다. NTIS데이터베이스는 미국의 정부위탁보고가 중

심이나, 최근에는 외국의 과학기술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려는 것이 미국정부의 방침이다.

동시에 GRA & I(Government of Reports Announcements & Index)라는 격주간의 초록지를 발행하고 있다. PB보고서번호란 NTIS가 각보고서를 입수한 번호로 이에 따라 보고서가 정리된다. NTIS를 포함하여 U.S. Department of Energy(DOE) 등에서 발간하는 회색문헌은 연간 약 10만건에 이르고 있다. 보고서는 인쇄형태로 발생되어도 소수부만 발행되며, 마이크로형태로 보존되어, 마이크로피쉬 또는 프린트물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학위논문은 민간기업인 UMI(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사가 미국의 주요대학의 박사논문의 제목, 저자명, 대학명, 학위 명칭, 수여년에 부록을 첨부한 2차 자료를 발행하고 있으며, 검색과 복사로 입수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미국 이외에 캐나다의 유럽의 논문도 포함하고 있으며, 자료의 명칭도 1970년에 'Dissertation Abstracts'에서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로 변경되었다.

#### 3.2. 유럽

(1) 영국: 영국도서관대출국(BLLD)은 1963년에 회색문헌 및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를 책임지고 수집하는 부문으로서 Special Acquisition을 설치하는 등 오랜동안 동자료의 수집에 대하여 특별하게 배려하여 왔다. 20년 이상 BLLD는 약 300만건 이상의 기술보고서를 수집하였다. 1년에 약 15만건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집원의 대부분은 미국이다.

그러나 그 동안 이용이 저조하였던 학위논문에 대하여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위논문을 Boston Spa에 송부하도록 1970년에 영국의 대학에 제안하였다. 그리고 BLLD에서 학위논문을 마이크로필름화하여, 리스트화한 후에 원본을 각대학에 반송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논문의 존재를 알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은 복사제공하는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당초에는 2개 대학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에는 영국의 전대학의 학위논문 6만건을 소장하고 있다.

BLLD가 매년 수집하고 있는 약 18,000종의 회의자료중 약 25%가 회색문헌에 속한다. 즉,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프리프린트는 한정부수만 배포된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는 회의의 통지를

통하여 해당 사무국에서 직접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약 20만종을 넘고 있다. 그리고 출판지나 언어, 분야에 관계없이, 또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1회만 발행되는 자료, 잡지나 단행본의 일부나 별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회의자료의 모두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Boston Spa에 수집된 회의자료는 'Index of Conference Proceedings Received(ICP)'에 매월 게재되어, 매년 누적처리된다. 1964~1981년간의 18년분의 누적이 마이크로피쉬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도 BLAISELINE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하다.

BRTT(British Reports, Translations and Theses)의 전신은 1969년에 창설된 British Research & Development Reports이다. BRTT는 영국의 보고서, 정부기관 및 지방관청, 기업, 대학과 학협회에 의한 번역, 학위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의 보고서와 미간행의 번역 및 HMSO가 출판되지 않는 영국정부의 간행물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 월간지에 수록된 문헌은 광범위한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다.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BRTT는 호말 키워드색인이 있으며, 저자명, 보고서번호, 키워드의 누적색인이 분기 및 연차별로 발행되고 있다. BRTT중의 보고서와 학위논문도 SIGLE에 입력되어 있다. 영국의 번역물은 ITC(International Translations Center)의 데이터베이스, World Transindex와 National Translations Centre의 데이터베이스, Translations Registor Index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액세스가 가능하다.

(2) 유럽회색문헌정보시스템(SIGLE): EC위원회는 회색문헌의 수집, 서지관리, 액세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LLD와 협력하여, 1978년에 York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결과, SIGLE의 창설이 결정되었으며, 1981년에 가동되었다. SIGLE의 주목적은 문헌에의 액세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EC지역내의 중요한 국가 정보공급센터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을 결합 시킴으로서 서지적 망라성을 개선하는데 있다. 이 계획에 참가한 기관은 영국의 BLLD, 프랑스의 CNRS, 독일의 FIZ이다. 프랑스의 Saclay에 있는 Commissariat Energie Atomique가 서지기록의 일

력과 출력의 중앙처리센터이다.

SIGLE는 현재 7만건 이상의 과학, 기술, 인문과학, 사회과학분야의 문헌을 수록하고 있다. 인문과학분야와 사회과학분야의 입력은 1983년 이후 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EC에 의해 설립된 통신 네트워크인 I'M(Euronet-DIANE의 신명칭)을 통하여 액세스할 수 있다. SIGLE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적어도 입력한 국가센터에서 입수할 수 있으나, BLLD에서는 SIGLE에 입력된 영국의 정보에 추가하여 동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타국의 문헌도 상당수 소장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SIGLE의 데이터베이스는 BLAISELINE과 INKA의 호스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주제카테고리코드, 제목중의 키워드, 저자명, 소속기관, 국명, 발행년, 언어, 보고서번호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SIGLE의 목록규칙은 INIS와 매우 유사하다.

### 3.3. 일본

일본내에서 회색문헌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기관은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일본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센터이며, 이중 일부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JICST(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는 1984년 부터 클리어링부문에 2명의 담당자를 두고, 공공기관의 간행물로 입수하기 어려운 문헌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JICST 공공자료파일)하여 1984년 10월부터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88년 4월 현재 축적량은 16,028건이다. 대부분의 문헌에 300~350자 정도의 요약문이 첨부되어 있으며, 연간 약 4,000건이 추가되고 있다. 대상정보원은 1975년 이후 간행된 과학 기술분야 및 그 관련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학협회를 포함하는 공공법인과 비영리단체의 간행물로 이들 기관이 다른 기관에 조사, 연구 등을 위탁하여 작성한 문헌을 포함한다.

일본국회도서관은 1952년부터 PB보고서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해외과학기술잡지 및 보고서의 수집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일본내에서 발생하는 자료는 납본제도에 의해 비밀 이외의 것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그 수집량은 일본 최대이다. 과학기술분야도

포함하여 일본국회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회색문헌은 정부연구보고서 등 공공자료 9,341건, 요지집, 회의록 약 400건, 문부성 과학연구비과제 약 4,000건, 학위논문 약 9,000건 등을 소장하고 있다.

학술정보센터는 국공사립대학내에 한정하여 학위논문 약 8,000건, 정부지원 연구성과 11,000건, 학회발표논문 18,000건에 대한 온라인정보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 II. 맺 음 말

회색문헌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보고서는 산업기술정보원과 시스템공학연구소가 그 일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학위논문은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제도에 기초하여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는 사회과학도서관이 사회과학분야의 학위논문을 1981년부터 수집하여 1992년 12월 현재, 30,400건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자료는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일부만을 수집하고 있을 뿐 그외의 기관에서는 수집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문의 발전속도가 현저하게 빠른 의학·약학·생명과학 등의 분야는 타임래그가 2년 이상인 잡지 논문보다는 회색문헌 단계에서 입수,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바와같이 언제, 어디서, 무엇이 발생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서지통정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유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납본제도 등 법적인 뒷바침은 물론 작성기관은 서지기술의 명확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기술보고서에 대해서는 ISO 5966-1982: Documentation-Represent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Reports

와 같은 국제규격과, ANSI 1 39.18-74: Guidelines for Format and Produc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Reports와 ANSI Z 39.23-1974 Technical Report Number 등의 미국규격이 있다. 우리도 이러한 종류의 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NTIS나 SIGLE와 같은 수집, 처리,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우리나라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Gibb JM, Maurice M: *The System for Information on Grey Literature in Europe(SIGLE) Aslib Proc 34 (11/12): 493-497(82)*
- Gibb JM, Phillips E: *A Better Fate for the Grey or Non-conventional, Literatue. J Res Commun Stud 1: 225-234, 1978~1979*
- King D: *Market Research Reports, House Journals and Trade Literatue. Aslib Proc 34(11/12): 466-472, 1982*
- Wood D: *Grey Literature-the Role of the 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 Aslib Proc 34(11/12): 459-465, 1982*
- Vickers S: *Grey Literature Worldwide: the UAP Programme. Aslib Proc 34(11/12): 498-505, 1982*
- Vickers S, Wood DN: *Improving the Availability of Grey Literature. Interlending Rev 10(4): 125-130, 1982*
- 花田 美: 「ことばの泉」그레이·리テ라チュア 情報管理 23(1): 91, 1980
- 寺村由比子: 内外のテクニカルリポートの 要 國立國會圖書館月報 1981: 2-13, 1977
- 堀秀夫, 藤井邦彦: NTIS(米國政府レポート) 情報管理 23 (11): 1024-1041, 1981